

단피아, 원료염 일본수출 노린다!

원료염 · 일반염 320만톤 공급 ... 온즈로우도 생산능력 확대 박차

오스트레일리아 단피아가 2001년 포트헤드랜드의 염 생산능력을 825만톤으로 확대하고 온즈로우도 200만톤 공장을 건설해 일본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단피아는 원료염으로 일본에 300만톤을 공급하고 2002년 4월부터 수입이 완전 자유화된 일반염도 환홍(丸紅)을 창구로 20만톤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즈로우도 2001년 10-12월 3개월 동안 10만톤을 판매했고, 2002년에는 50만톤 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디아, 중국도 일본시장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데, 인디아는 초그레 생산이 본격화돼 70만-80만톤 정도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청하염업(大清河鹽業)이 3-4년 후 100만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소다공업용 원료염 수입동향

(단위: M/T, %)

구 분	1999	2000	2001	증감률
멕시코	3,870,439	4,293,693	3,620,057	▽15.7
AUS	3,648,271	2,958,485	3,207,951	8.4
인디아	0	22,040	187,034	748.6
중 국	103,439	225,274	273,708	21.5
합 계	7,622,149	7,499,492	7,288,750	▽2.8

자료) 일본소다공업협회

<Chemical Journal 2003/04/23>